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신년 메시지

“실질 성장은 참된 개종에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3년 북아시아 지역 주제는 “실질 성장은 참된 개종에서 나옵니다”입니다

몇 년 전에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님이 “진주 상자”의 비유로 가르치신 대로 외형적인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속죄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위대한 속죄의 기쁨을 발견하신 분이 아주 많다고 하니 기쁘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신권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아 지난 몇 년에 걸쳐 다음 주제들을 실천하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 매진해왔습니다.

1. 복지 원리에 따라, 그리고 주님의 방법으로 도움을 제공한다¹

2. 구조하라²

3. 그리스도와 같은 지도력을 발전시킨다³

4. 실질 성장을 통해 참되고 살아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운다⁴

2013년에는 우리 각자가 위 주제들을 비롯해 다른 여러 주제들을

실현하고자 쉬지 않고 노력하여 참된 개종을 통해 실질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진정으로 개종하면 개인은 믿음과 마음과 삶에 변화가 생겨 ……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는 의식적인 결심이 그에 뒤따릅니다. …… 이는 개인적인 회개와 순종, 부지런함과 더불어 하나님에게서 오는 계시를 통해 얻는 결과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크나큰 변화를 겪고 영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주께로 돌아왔고”, 리아호나, 2012년 11월호, 106쪽)

우리가 더욱 개종하고 그리스도의 속죄에 의지하여 다음과 같은 주님의 뜻을 성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즉, 가족이 더욱 강해지고, 매주 더 많은 교회 회원이 성찬식에 참석하며, 더 많은 사람이 성전에 참여하여 축복을 느끼고, 더 많은 사람이 진리를 동포에게 전하고자 부지런히 힘쓰고, 더 많은 청소년이 강화되며, 더 많은

사람이 선교사 부름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놀라운 신앙과 사랑에 찬 수고에 깊은 감사와 찬사를 보냅니다.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영의 인도가 여러분에게 가득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깊은 감사를 전하며,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Michael Rynold
마이클 티 린우드

Ryukiko Yamashita
가즈히코 야마시타

Koichi Aoyagi
코이치 아오야기

- 주
-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병든 자와 고난 당하는 자를 기억하라. 이는 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는 나의 제자가 아님이니라.(교리와 성약 52:40)
 - 지활동 회원, 부분 가족 회원 및 교회 회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구조의 손길을 내밀라는 문은 회장의 권고.
 - 그런 즉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제3니파이 27:27)
 - 너희는 영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났느냐? 너희는 너희의 얼굴에 그의 형상을 지녀 보았느냐? 너희는 너희의 마음에 이 크나큰 변화를 경험하였느냐?(앨마서 5:14)

하늘과 땅을 묶으며

가족 역사 사업이 주는 축복

리아호나 지역 소식에서는 2013년부터 가족 역사 사업에 관한 기사 ‘하늘과 땅을 묶으며’를 연재한다. 그 첫 번째로 한국의 가족 역사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배덕수 장로와 세 명의 가족 역사 지역 고문의 간증을 소개한다.

우리의 최우선 과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땅을 칠까 하노라”(말라기 4:5~6)라는 말라기가 전해 준 주님의 말씀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고린도전서 15:16)라는 바울의 말을 성경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구절을 1823년 9월 21일 모로나이 천사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보라,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선지자 엘리야의 손으로 너희에게 신권을 드러내리라. 그리고 그는 아버지들에게 한 약속들을 자녀들의 마음에 심을 것이요, 자녀들의 마음은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이키리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오실 때에 온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리라.”(교리와 성약 2)

이 말씀은 커틀랜드 성전이 헌납된 후 일주일 뒤인 1836년 4월 3일, 선지자

엘리야가 “말라기의 입으로 말한 바 된 그때가 완전히 이르렀나니”(교리와 성약 110:14)라고 말하며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신권 열쇠를 맡김으로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합당한 신권 의식을 통해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주님의 축복을 우리들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신권 의식에는 죽은 자를 위한 구원 의식이 포함되어 있어서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최대의 책임은 돌아가신 조상을 찾는 일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아버지와 자녀 간에 일종의 굳게 매는 연결 …… 그것은 죽은 자를 위한 침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자신의 구원을 위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자는 영육에서 지옥의 사슬에 묶여 후손 중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구원 의식을 받아주기를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간절히 기다릴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 2012년 2월 28일 제일회장단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우리 자신의 조상들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님은 “청소년 여러분, 삶에서 사탄의 영향력을 제거하는

확실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까? 자신의 조상을 찾는 데 몰두하고, 성전에서 성스러운 대리 의식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이름을 준비한 다음, 성전에 가서 그분들을 대신해 침례와 성신의 은사를 받으십시오 …… 삶에서 사탄의 영향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이보다 더 훌륭한 방법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성전에 계시며 그곳에 오는 청결한 자를 축복하시길 원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성전 의식으로 한 번의 축복을 받았다면, 자신의 조상들을 위한 대리 의식들을 통해서 성전에서 하늘 왕국의 율법으로 맺은 성약들을 새롭게 하며 수많은 축복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배덕수 장로, 지역 칠십인

가족 역사 사업의 중요성

우리 중에는 성전 사업에 훌륭히 참여하면서도 자신의 계보를 탐구하는 일에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성스러운 의식을 받지만, 돌아가신 자신의 친족을 찾으라는 후기 선지자들의 권고를 따르지 못해 준비된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상의 가족 역사를 작성하고 받은 요청서로 성전 의식을

받는 회원들은 양쪽의 축복을 모두 받는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행해지는 신성한 의식과 성약은 개개인을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며 가족을 영원히 하나로 결속시켜 줍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최대의 책임은 죽은 자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는 인봉 권능이 우리의 손에 있어, 때가 찬 경륜의 시대, 즉 인간의 구원을 위해 창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는 시대에 우리의 자녀와 죽은 자를 인봉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475쪽)

가족 역사 사업, 즉 친족의 이름을 찾아 성전에서 침례, 확인, 예비 의식, 엔다우먼트 및 인봉 의식을 지속적으로 받는다면, “나의 백성의 머리 위에 부어질 축복의 시작이니라, 참으로 그러하도다”(교성 110:10)라는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확실한 간증으로 전합니다. 전병기 형제, 가족 역사 지역 고문

아름다운 사업

가족 역사 지역 고문으로 봉사하는 동안 많은 회원들이 가족 역사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최근에는 여수 지부 청소년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가족 역사 사업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가족 역사 사업에서 청소년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 역사 사업은 청소년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고 이 세상의 악에서 보호해 줄 굳건한 신앙을 선사합니다. 이 사업은 가장 성스러운 것이며, 또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업 안에는

우리들에게 약속된 영적이며 현세적인 모든 축복이 담겨있습니다.

저는 자녀들과 함께 제적등본을 들고 가족 역사 사업을 하면서 많은 깨달음과 간증을 얻었습니다. 조상의 이름을 알고 그분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저희 가족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먼 조상이지만 그분들의 존재를 안 것만으로도 영의 세계에 머물고 있을 그분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업을 통해 우리의 근원을 알고, 영원에 대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김익수 형제, 가족 역사 지역 고문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며

가족 역사 사업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 예를 들면 선교 사업이나 가정 복음, 그리고 복지나 성전 사업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언뜻 조상과 나와의 일, 성전에서만 행하는 일로만 보일 수도 있는 가족 역사 사업은 실제로는 회원들을 보다 폭넓고 깊이 있게 도울 수 있는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가족 역사 사업을 충실히 하면 가족간의 단합, 사랑, 종교에 대한 이해가 깊어집니다. 간증이 강화됩니다. 가족 역사 사업을 하면서 개종하게 된 회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이 사업이야말로 우리를 주님께 가까이 인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어떤 주님의 사업보다도 이 가족 역사 사업은 실제로 행했을 때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모든 계명을 지키는 가운데 이 가족 역사 사업도 충실히 행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간증의 영이 풍성해지고 제 자신의 시야가 죽음 너머 영원에까지 확실히 넓어졌습니다.

임종하 형제, 가족 역사 지역 고문



가족 역사 사업 훈련 모임에서 함께 한 가족 역사부 직원들과 가족 역사 지역 고문들. 앞줄 왼쪽부터 김익수 형제, 임종하 형제,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의 아오야기 장로, 홍하식 형제, 황재식 형제, 박형준 형제, 당시 모임을 통역한 박세진 자매, 전병기 형제



한민족과 교회의 만남 ①

한국 교회 역사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이 기사는 교회와 한민족과의 관계를 김호직 박사의 침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탐구하고 있습니다.

1. 솔트레이크 시립 묘지에 매장된 한국 유민들

과연 김호직 박사 침례(1951년) 이전에는 한민족이 교회와 접촉한 적이 없었을까? 1869년 미대륙횡단철도가 놓이면서, 이미 유타 내 철도 및 광산 노동에 한인들이 존재했다는 기록이 외부 문서를 통해 확인되면서 궁금증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공식적인 최초의 미주 한인인 1903년 1월 13일에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하여 사탕수수 농장으로 건너간 102명(또는 101명)의 하와이 이주 노동자들이었다. 그러나 마침내 1995년에 '유타 커넥트 빙햄 캐년 구리 광산 노동자 명부'에서 41명의 한국인 이름이 발견되고, 그중 일부는 1800년대 후반에 이미 미국에 입국했을 개연성이 보이면서 1903년 이전 유타 거주 한인의 존재가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 일을 주도한 이정면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 솔트레이크시티 묘지에 1895년에 묻힌 사람들은 한국에서 정식 이민해

온 사람들 보다 빨리 온 사람들이 아닐까? 우리 한국 민족이 쇠국의 쇠사슬을 풀고 공개적으로 해외로 진출하기 시작한 것은 1860년 이후의 일이다. 조국의 정정이 어지러워지자 한국인은 일찍이 조국을 뒤로하고 이민 아닌 유민으로 중국 동북부(약 200만 명), 러시아의 연해주(약 40만 명), 그리고 일본(약 200만 명) 등으로 떠났던 것이다. 중국의 동북부 지방(구 만주)으로 빠진 일부는 중국 본토의 상해, 남경 등을 거쳐 중국인의 이민과 휩쓸려 이곳 미국에 온 것은 아닌가 추측되기도 한다. 이곳 솔트레이크시티 묘지에 중국인은 1875년부터 묻히기 시작했으며 중국인의 유타 진출은 1860년대 철도공사 당시 이미 12,000명 이상에 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²

안타깝지만 이들에 대한 정보는 교회 안팎 어디에서도 아직은 찾을 수 없다. 조사의 어려움은 다시금 이정면 교수의 인터뷰에서 찾을 수 있다. 인구이동론을 강의해 온 그는 2006년 유타 코리아 타임즈에 기고한

8월 19일자 칼럼에서 이렇게 회고했다. "한국인 노동자들은 먹고 살기에 바빠 어떤 기록, 메모 같은 것도 남길 여유가 없었던 것 같다. (반면에) 중국인이나 일본인들은 고생스러운 생활 속에서도 그때 그때 수기나 메모 같은 것을 적어 놓았다."

2. 솔트레이크시티의 염호 여관

결국 역사를 조금 더 거슬러 내려와 1900년대 초반 하와이 노동 계약 기간이 끝나 유타로 이주한 한인들과 교회와의 접촉 여부부터 조금 더 추적해 보기로 하자.

1905년까지 한국에서 하와이로 7,226명의 한인이 이주하였는데, 이들 중 1500 여 명이 더 좋은 조건을 찾아 미국 본토로 진출해 유타를 비롯한 중서부 지방의 탄광노동자로 취업한 것으로 보인다. 1907년 1월 공립신보에 실렸던 솔트레이크 시내 '염호 여관' 개업 광고는 솔트레이크 시내에 수백 명의 한인들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의 관심은 자연히 이들 중에 김호직 박사처럼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였거나, 최소한 접촉한 흔적이라도 없었을까 하는 것이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주

1. 이정면 박사(유타대 명예교수이자 저명한 지리학자)는 1996년 미국 유타 주 수립 백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주정부의 요청에 따라 유타 한인 이민사를 준비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그는 1997년 5월 22일 솔트레이크 시립공원의 묘지 매장자 데이터에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접근할 수 있었다.
2. 유타 이민사, 유타 코리아나 홈페이지 (<http://www.utahkoreana.com>)에서 인용.



염호 여관 광고

"본인이 미국에 온 지 수년에 노동 형편을 따라 각처로 다니다가 이곳에 와 본즉 삼사 백인 동포가 주점할 처소가 없이 쓸쓸하옵는데 본인을 권하여 설치하라 하옵기에 여러 동포의 사랑하심을 입어 여관을 신설하옵고 겸하여 제반 노동을 주선하오니 참군자는 왕림하시옵소서."
-객주 박제순

한국 선교부 조직 50주년 기념 모임이 열린다

지난 2012년 11월 18일 서울 남스테이크 영등포 와드에서 한국 선교부 조직 50주년 기념 모임이 열렸다. 이 뜻 깊은 모임에는 교회의 신권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초기 교회를 이끌었던 원로들과 서울 경인 지역의 많은 회원들이 참석했다.

한국에 처음으로 외국인 선교사들이 발을 들인 것은 1956년 4월이었다. 그 당시에는 일본에 본부를 두고 있던 북극동 선교부에서 선교사들이 파견되었다. 그로부터 7년 후인 1962년 5월,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이 한국 선교부 조직을 발표함으로써 한국 교회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당시에 한국은 지방부 시절로, 서울의 중앙, 서, 동, 동대문 지부, 그리고 부산 지부로 구성되어 있었다. 한국 선교부의 초대 회장으로 부름 받은 게일 이 카 형제 부부가 한국에 도착한 것은 1962년 7월 6일, 그 후 50년의 세월이 흘러 2012년인 지금에 이를 때까지 한국 교회는 눈부신 성장을 거듭했다. 이날 모임은 교회의 성장을 축하하고 50년 동안 열심히 봉사한 이 땅의 모든 선교사들과 회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기념 모임에 앞서 진행된 음악회에서는 50년의 세월 동안 한결같이 발전해 온 이 땅의 복음과 신앙을 아름다운 연주와 노래로 축하했다. 수준 높은 연주는 모임의 격을 높이기 위해 충분했으며 심금을 울리는 노래는 회원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기념 모임에서 연사로 나선

크리스텐슨 서울 선교부 회장은 “초기 회원들의 희생과 봉사가 있었기에 한국 선교부가 조직될 수 있었고 지금처럼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뒤이어 연단에 오른 공보 선교사인 백 장로는 과거 한국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던 시절 그가 찍었던 사진 등 초기 한국 교회의 모습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소개하였다. 홍무광 회장도 과거 교회의 역사를 추억하며 자신의 간증을 전했다. 그는 감동으로 봉사하던 시절, 한국어도 서툰 젊은 선교사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침례의 물가로 인도하는지 의아해 유심히 관찰했다고 말하며 이렇게 덧붙였다. “저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서툰 언어로도 복음을 가르치고 간증을 전했습니다. 한국 사람들과 친분도 쌓았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사업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특별 손님으로 초대된 서강대학교의 김용해 신부는 한국 선교부 조직 50주년을 축하하며 “우정이야말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정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김창호 장로는 마지막 연사로 연단에 서서 이렇게 말했다. “이 땅에 복음을 전했던 많은 선교사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의 봉사와 희생 때문에 이 땅에 회복된 복음이 전해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힘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불가능 것처럼 여겨지던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 한국에는

열여섯 개 스테이크가 있고 여섯 개 지방부가 있고 한 개의 성전이 있고 세 개의 선교부가 있고 팔만 명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선교사로 봉사하셨던 분들께, 부름을 통해서 봉사하셨던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음악과 감동적인 간증이 어우러졌던 이날 모임은 앞으로의 또 다른 50년을 기약하며 끝을 맺었다. ■



복지의 ²⁵ 기본원리 ABC 멍에 YOKE

거 대한 트랙터와 자동화된 수확기가 있기 전에 농부들은 땅을 갈고 농작물을 심고 수확하는 일의 대부분을 손으로 했습니다. 일부 농부들은 말이나 소를 사용하여 밭기 어려운 위업을 이루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 동물에게 마구를 채우고 농기구를 연결하였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동물들은 매우 힘든 노동을 하기 위한 지시를 받을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주인의 부담을 가볍게 해 줄 뿐만 아니라 하루 사이에 엄청난 양의 일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농부들은 두 마리 소를 함께 연결시키는 멍에라고 불리는 도구를 사용하여 힘을 배가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멍에는 종종 노예의 상징으로 사용되곤 합니다. 멍에를 맨 사람은 자유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살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도 세상적인 멍에를 스스로 메게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몇몇 부모들이나 대부분의 조부모들이 짐작조차도 할 수 없는 영향력 아래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수입보다 더 적게 소비하려고 노력했으나,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마치 끝이 없는 듯 지출합니다. 손쉬운 대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채무자란 멍에를 메게 되었습니다. 채울 수 없는 욕구와 무책임한 신용 카드, 대출 회사 때문에 자유와 성품, 가족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수입 범위 내에서 생활할 것을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자신이 버는 것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지불 능력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수입 범위 내에서 생활한다면 불필요한 부채를 갚을 방법에 대해 계속 고민할 때보다 더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드립니다.”(신앙에 충실함, *리아호나*, 2006년 5월호, 18쪽)

지난 몇 년 동안, 교회 지도자들은 외설물의 해악에 대해 경고해왔습니다. 이 무자비한 주인의 멍에를 스스로 맨 사람들과 가족들의 삶은 파괴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외설물]은 성난 폭풍과 같이 개인과 가족을 파괴하고 있으며, 한때 건전하고 아름다웠던 것을 완전히 파멸시키고 있습니다. …… 이러한 행동에 자신이 관련되어 있다면, 바로 지금이 돌아서야 할 때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순결의 법을 깨뜨리라는 유혹을 받는다면 [도망하여] 밖으로 나[간]’ 애굽의 요셉이 보인 모범을 따르십시오.” (앤소니 디 퍼킨스, 너희 스스로에 관하여 조심하라, *리아호나*, 2012년 11월호, 54쪽)

교육, 신체 및 영적인 건강, 취업, 간증과 개종, 이웃과 어울리는 방법에 대한 우리의 태도 등 모든 것이 우리의 자유와 영원한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님은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속죄의 힘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이 처한 환경이 바뀌도록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간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수동적인 객체보다는 행동을 하는 주체가 될 것입니다.”(필멸의 여정과 속죄, *리아호나*, 2012년 4월호)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 한 가지 방법은 우리 스스로 어떤 멍에를 질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쉬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마태복음 11:28~30)

잠시 멈추어 무거운 멍에를 단단하게 메고 있는 자신을 상상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멍에는 두 사람이 함께 끌도록 되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한 쪽에 메어 있다면, 여러분 곁에서 무엇이 또는 누가 여러분과 가까이 멍에를 끌 것인지 자문해보십시오. 멍에의 다른 한쪽에 있는 것이 과도한 빚, 생활하기에 불충분한 자금, 중병이나 건강에 대한 경고, 열악한 직장, 물질이나 외설물 중독 등과 같이 여러분을 약화시키는 영향력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동반 관계는 우리가 축적해 놓은 것을 고갈시키고, 심지어는 우리를 절망의 구렁 속으로 밀어 넣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여러분 곁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멍에를 메고 계신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것은 그분께서 대부분의 짐을 지시고 계신 덕분입니다. 구주께서는 속죄를 통하여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사망의 줄을 끊으사 무덤이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셨습니다.(모사이야서 16:7 참조) 엘마 백성들에게 하신 것처럼, 구주께서는 “[우리] 어깨에 놓인 짐을 가볍게 하리니 …… [우리] 등에 그것을 느끼지 못”(모사이야서 24:14)하게 하실 것이며, 또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불하는 비용은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제3니파이 9:20)과 주님께서 우리 옆에 계시도록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을 통해, 노예의 상징인 멍에는 자유와 구원, 영생의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

언제나 출발선에 서서

나는 고등학교 때 개종했다. 처음에는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저활동 시기를 거치기도 했지만 어느새 교회는 내 일부가 되었고 자연스레 간증이 싹트게 되었다. 내가 본격적으로 신앙 생활을 한 것은 고등학교 졸업 후 연극을 하겠다는 꿈을 품고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을 때였다. 당시 아무것도 모르고 가진 것 또한 없던 어린 나를 워드 회원들은 따뜻하게 대해 주었다. 나는 열심히 교회에 다니는 한편,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도 계속 노력했다. 극단에 들어가서 포스터 붙이는 일부터 시작하여 차근차근 연극을 배워 나갔다. 연극을 하다가 돈이 필요하면 회사에 취직해 돈을 마련했고 그런 후 다시 연극을 했다. 힘은 들었지만 내게 연극은 그만큼 포기할 수 없는 꿈이었다.

그런 중에 나는 선교 사업을 결심하게 되었다. 내가 꿈을 위해 정진했던 것처럼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 사업을 나가는 것 또한 무척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극단 사람들은 걱정을 했고, 나는 불투명한 미래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도와주시리라는 믿음 하나로 선교 사업이라는 출발선에 섰다. 선교 사업을 마친 후 다시 극단에 들어갔을 때, 나는 적지 않은 나이에 불구하고 처음부터 다시 포스터 붙이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내게는 무언가 전환점이 필요했다. 나는 기도를 시작했고 주님께 매달렸다. 유학을 가자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오랜 시간 주님께 간구하고 난 뒤의 일이었다. 다시 취직을 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고 영어라고는 기초 수준에 머물렀지만 나는 과감히 유학길에 올랐다. 이번에도 새로운 출발선이었다. 영어는 물론이고 공부에도 익숙하지 않았던 나는 우선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연습부터 했다. 그때 내 나이가 서른이었다. 너무 늦은 선택이 아니었을까, 가끔 불안할 때도 있었지만 내 목표는 확고했고 주님께서 도와주시리라는 믿음 또한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연극인이 되는 한편 내가 가진 재능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확실하고 뚜렷한 목표가 있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어떤 노력이든 할 수 있었다. 영어 기초부터 시작한 나는 차츰차츰 공부 시간을 늘려나갔고 나중에는 6시간 이상, 하루 종일이라도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공부를 하는 동안에도 나는 내가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나의 꿈과 목표는 공부를 계속 해 나갈수록 더욱 커졌다. 쿠모라 페이지전트에 참석했을 때에는 내가 한국에 돌아가서도 내 나라의 성도들과 함께 꼭 이런 걸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했다. 나는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벌었고, 영국 유학까지 더해 총 11년 동안 공부를 했다. 주님의 인도와 도움이 없었다면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내 졸업 작품을 오프브로드웨이에서 올린 일도, 귀국해서 여러 공연에 참여해 한 명의 연극인으로 서게 된 것도 모두 주님 덕분이었다.

내 인생은 어느 것 하나 복음과 연결되지 않은 것이 없다. 나는 항상 주님께 감사드린다. 여러 모로 부족한 나를 늘 새로운 출발선에 세워 주심에, 그 출발선에서 내 등을 밀어 주심에 감사드린다. 또한 내가 조금이라도 교만해질 때면 나를 넘어지게 해 주셨음에 감사드린다. 나는 넘어지면서 겸손을 배울 수 있었다.

나는 지금도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산이나 바다로 가서 주님께 오랜 시간 기도를 드린다. 내가 진심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언젠가 반드시 그분만의 방법으로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공연 연출자로서 나는 또 다른 출발선에 서 있다. 세계적인 연출가와의 로봇 공연 작업, 새로운 극단에서의 작품 발표, 그리고 한국에서 다시 한 번 페이지전트를 하는 일 등 내가 가야 할 길은 여전히 멀지만 주님께서 내 동반자가 되어 주시리라는 사실에 나는 또다시 용기를 얻는다. ■

〈김영순 자매, 서울 강서 스테이크〉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국내 13명/해외 3명



고은별 자매

대전 스테이크
둔산 와드
서울 선교부



배가경 자매

서울 스테이크
불광 와드
부산 선교부



구수미 자매

부산 스테이크
온천 와드
서울 선교부



배준수 장로

청주 스테이크
예성 와드
서울 선교부



구영진 장로

수원 스테이크
신갈 와드
서울 선교부



양성준 장로

인천 스테이크
부평 와드
부산 선교부



김정연 자매

광주 스테이크
첨단 와드
라이에 하와이 성전
방문자 센터



이인성 장로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
화양 와드
부산 선교부



김하연 장로

광주 스테이크
풍향 와드
하와이 호놀룰루
선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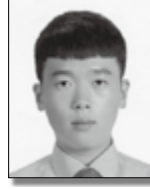
정지호 장로

부산 스테이크
연산 와드
서울 선교부



길의찬 장로

인천 스테이크
부평 와드
부산 선교부



조창영 장로

서울 스테이크
신당 와드
부산 선교부



박재우 장로

서울 스테이크
녹번 와드
대전 선교부



허신행 장로

서울 스테이크
신당 와드
부산 선교부



**양기욱 장로
김옥선 자매**

부산 스테이크
광안 와드
부산 선교부



**Kanyanga
Couple**

미군 지방부
영어 지부
산타도밍고 도미니칸
공화국 성전

역원 및 단위 조직 명칭 변경

서울 스테이크

신당 와드와 삼청 와드가 통합되어 신당 와드가 됨
신당 와드 감독: 백길환(전임: 삼청: 김우경, 신당: 백길환)

지역 소식 기사를 모집합니다

리아호나 지역 소식에서는 회원 여러분의 기사와 간증, 그리고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 하늘과 땅을 묶으며: 가족 역사 사업에 관련된 경험담이나 간증, 혹은 가족 역사 사업 성공 사례.
2.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매키세택 및 아론 신권 정원회, 상호부조회, 초등학교, 청년, 주일학교 등 각 단위 조직 활동의 성공 사례.
3. 우리들의 세미나리: 세미나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와드나 지부의 사례와 세미나리를 통해 변화된 삶이나 강화된 간증에 대한 이야기.
4. 봉사의 현장에서: 남몰래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후기 성도들의 미담.

보내실 곳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소: 서울시 중구 신당6동 103-1번지 3층
리아호나 지역 소식 앞

이메일: aron1979@hanmail.net

전화: 080-232-1441(내선 564)